

K-이차전지, ESS 포트폴리오 강화… 중장기 경쟁력 키운다

LG엔솔 각형 기반 제품 상용화 추진
삼성SDI 美 합작법인 중심 사업 확장
SK온 내년 LFP ESS 배터리 양산

이차전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정체와중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중요성이 재부각됨에 따라 실적 회복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미에서 처음으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대량 생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생산 효율화와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며 안정적인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삼성SDI와 SK온도 잇따라 북미 생산라인 전환과 투자를 확대하며 ESS 중심의 성장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영업이익 601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며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배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ESS용 LFP 배터리 양산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직원이 배터리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

을 시작하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대 중국 관세 인상과 탈중국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산 배터리 수입이 제한되면서 현지 생산의 이점이 부각됐고 ESS 사업이 수익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까지 북미 지역 ESS 생산능력을 3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일부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2027

년까지 각형 기반 LFP ESS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적자 탈출을 위해 미국 내 합작법인을 중심으로 ESS 사업 강화에 나섰다. 지난 10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 공장의 일부 라인을 삼원계(NCA) 기반 ESS 배터리 생산용으로 전환해 가동을 시작했으며 내년 4분기에는 LFP 배터리 양산

라인을 추가해 북미에서 연간 3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SK온은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개조해 내년 하반기부터 LFP ESS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을 포함한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ESS 중심으로 전환하며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지난 10월 미국 플랫아이언 에너지와 1GWh 규모의 LFP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6.2GWh 규모의 추가 프로젝트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고객사와 최대 10GWh 이상 규모의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SK온은 지난 1일 SK엔부와의 합병을 공식 완료하고 기술·사업·재무 등 핵심 부문에서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배터리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신산업의 성장세가 맞물리며 ESS 수요는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6년 북미 ESS 시장은 올해보

다 40~50%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 전반에서는 내화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 기술이 향후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면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ESS에는 내화성과 공간 효율성이 높은 LFP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며 중국은 이미 LFP와 NCM 기술의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나트륨이온배터리 개발까지 진행 중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한·중·일 3국 경쟁 구도지만 일본은 파나소닉 중심의 체계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CATL 같은 중국 업체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미 LFP와 NCM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나트륨이온 배터리 개발까지 병행하고 있어 불리한 기술 격차를 조속히 좁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3분기 실적 발표

HD현대, 정유부문 흑자… 영업이익 294% ↑

매출 18조2243억, 영업이익 1.7조
조선·중공업 등 계열사 실적 견조

HD현대(대표이사 회장 정기선·사진)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8조2243억원, 영업이익 1조7024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 영업이익은 294.5% 증가했다. 조선과 전력기기 사업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간 가운데 정유 부문이 흑자 전환하며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고선가선박 매출 비중 확대와 생산성 개선 효과로 매출 7조5815억원, 영업이익 1조538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4%, 164.5% 늘어난 수치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AM(After Market) 사업과 디지털 솔루션 부문



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3%, 영업이익은 12.2% 증가한 5132억원과 936억원을 기록했다.

건설기계 부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북미·유럽 시장 수요 회복과 신형·광산 시장 공략, AM 사업 다각화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5.8% 늘어난 2조526억원, 영업이익이 96.7% 증가한 1432억원을 거뒀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원가 경쟁력 강화와 고수익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업황 둔화로 석유화학 사업이 부진했으나 정제마진 상승에 힘입어 매출 7조3285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을 거두며 1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장 가동 안정화와 효율 극대화,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개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변압기 판매가 확대되고 국내 고압차단기 매출이 증가하며 매출 9954억원, 영업이익 2471억원을 기록했다. 고부가 프로젝트 반영으로 영업이익률은 24.8%를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HD현대 관계자는 “조선 및 전력기기 부문의 실적 호조 속에서 정유·건설기계 부문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며 3분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며, “친환경 기술 개발과 생산 효율 극대화를 통해 안정적 실적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에어로, 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

매출 6조4865억, 영업이익 8564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부문 선전으로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4865억원, 영업이익 8564억원을 달성했다고 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7%, 영업이익은 79% 증가했다. 지상방산 부문의 견고한 수익성과 한화오션의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은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사업별로는 지상방산 부문은 매출 2조1098억원, 영업이익 57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30% 늘었다.

국내 매출은 화생방 경찰차, 차륜형 대공포 판매 등 주요 양산 사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9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 부문은 정비 수요 활성화에 따른 엔진 부품 AM(에프터 마켓) 물량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26% 증가한 6040억원,

영업이익은 3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회사인 한화오션은 액화천연가스(LNG)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매출이 확대되며 매출 3조234억원, 영업이익 2898억원을 달성했다. 한화시스템은 매출 8077억원, 영업이익 225억원을 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올 3분기 실적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잡힌 방산사업 포트폴리오가 실적을 이끌었다”며 “4분기에도 자회사들과 육해공 방산 시너지를 발판으로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에서 수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HS효성그룹, ‘실리콘 음극재’ 사업 본격화

유미코아 합작법인 설립 추진
조현상 부회장, 현장 진두지휘

HS효성그룹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HS효성은 지난달 31일 1억2000만 유로(약 2000억원)를 투자해 벨기에 글로벌 소재기업 유미코아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을 인수하고, 유미코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당국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조현상 부회장이 코로나 이전부터 유미코아 본사를 직접 방문하며 추진해 온 것으로, APEC 준비 기간에도 협상을 위해 양사 간 철야미팅을 이어가며 계약 일정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은 이번 인수를 발판으로 향후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오른쪽)과 바트 샴 유미코아 CEO이 벨기에 현지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HS효성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첫 투자지는 울산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HS효성 관계자는 “기존 타이어코드, 첨단모빌리티 소재, AI·디지털전환(DX) 중심 사업 구조에 이번 배터리소재 사업이 더해지면서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방산·에너지 등 고성장 산업 전반으로의 포트폴리오 확대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KAI, SAR 정찰위성 5호기 성공 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자사가 자체 제작한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지난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팰컨 9’ 발사체를 사용, 발사됐다고 3일 밝혔다.

425 사업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과 전자광학(EO)·적외선 장비(IR) 탑재 위성을 군집하는 국방 감시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KAI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SAR위성체 시제제작 계약을 통해 2018년부터 SAR위성체 시제 제작업체로서 위성체 환경시험, 제작, 발사 등 개발 전반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우주기반 정찰 전력을 확보해 주요 관심 지역의 관측자료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후속사업 또한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우주사업 확대를 위해 7월 민간 최초로 4톤(t)급 대형 열진공 챔버(Thermal Vacuum Chamber)를 본사 우주센터에 구축하며 소형부터 대형 위성까지 동시 시험할 수 있는 체계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전자파 시험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원스톱으로 ‘설계-제작-환경시험’에 이르는 위성 개발 전체 프로세스를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우주센터를 완비, 후속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